

지역사회가 배출한 인물-
일제하 독립운동가를
중심으로

석주(石洲) 이상룡(李相龍, 1858~1932)

- 1858년 경북 안동군 임청각 출생
- 1910년 신민회의 독립군 기지 건설에 동참하여 망명
- 1911년 서간도 정착
- 경학사(耕學社), 부민단(扶民團)
- 1919년 임시정부 산하의 군사기관인 서로군정서 조직, 독판에 취임
- 1925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 취임

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배경

- 독립운동 기관으로서 임시정부 필요성
→ 「대동단결의 선언」(1917. 7)
- 제1차세계대전과 ‘민족자결주의’
- 3·1운동
→ 독립운동의 구심체
독립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

국내외 임시정부 수립

- 러시아 연해주
대한국민의회(1919.3.17)
- 중국 관내
상해 임시정부(1919.4.11)
- 국내
한성정부(1919.4.23)

통합 임시정부 성립

- 대한국민의회 - 상해 임시정부 논의
무장투쟁론 vs 외교독립론
- 한성정부의 법통성 계승
상해에 통합임시정부 설립
- 이동휘(대한국민의회)의 국무총리 취임
에 따른 부분적 통합

임시정부 활동

- 연통제: 국내와의 행정연락기구
임시정부와 국내 국민과의 연계 도모
- 특파원 파견
- 교통국: 국내 국민들 사이에 자금 조달
및 인물 왕래.
이륜양행(교통국 중간거점)

국민대표회의

- 임시정부의 침체
: 일제의 탄압
외교활동 부진
- 국민대표회의(1923. 1~5)
창조파: 임시정부 해산, 신정부 수립
개조파: 임정 유지 개혁

소해(宵海) 장건상(張建相, 1882~1974)

- 1882년 경북 칠곡군 출생
- 1905년 일본 와세다대학 입학,
- 1908년 도미 인디애나주립대학 법학과 졸업
-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위원 선임
- 1942년 중경 임시정부 국무위원
- 1945년 임시정부 대표로 화북조선독립동맹 파견
→ 독립운동세력 연합전선 구축 협의
- 1950년 국회의원 선거 당선



임시정부 조직의 개편

- 조직 개편: 주석제로 전환
주석이 정부의 행정권을 장악,
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개정
- 「대한민국건국강령」(1941)
삼균주의에 기반
→ 정치·경제·교육의 균등

한국광복군의 활동

- 한국광복군 창설(1940)
조선의용대 참여(1942)
- 연합군과 공동작전 수행
인도·버마전선(영국군)
미국의 OSS(전략첩보국)와 합작하여
국내진공작전을 추진

임시정부의 통일전선정부화

- 좌익진영의 임시의정원 참여(1942)
→ 한국독립당(여당)과 좌익진영 정당(야당)
- 좌우연합정부 구성(1944)
국무위원 14명 중 좌익진영 5명
☞ “우리 민족의 각 혁명정당과 사회주의 지도자들의 … 전민족 통일전선의 정부”

대한민국의 기원

- 대한제국 → 대한민국(민주공화국)
- 1948년 제헌헌법
임시정부 계승 천명
→ 민족의 자주적 힘에 의한 건국
대한민국임시헌장(1944) 계승.
삼균주의 → 만민균등주의

단주(丹洲) 유림(柳林, 1898~1961)

- 1898년 경북 안동 출생
- 1910년 경술국치에 단지, '충군애국(忠君愛國)'
- 1919년 3·1 운동 안동 시위 참여
- 1921년 베이징에서 신채호 교유 → 아나키즘 수용
- 1929년 조선공산무정부주의자연맹 조직
→ 일제 타도, 자유연합에 기초한 무정부주의 사회
- 1942년 중경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,
1944년 국무위원 선임

아나키즘(anarchism)-1

- 정부 부정 ×. 인간의 인간에 대한 모든 강제적 권위 행사를 부정
→ 자유로운 개인의 연합에 의한 공동체
- 상호부조론(크로포트킨): 사회적 약자 사이의 상호주의와 협동을 강조
↔ 사회진화론의 생존경쟁
(우승열패, 약육강식)

아나키즘(anarchism)-2

- 개개인이 스스로의 자율성·존엄성·창조성에 근거, 자신의 운명을 가능한 한 스스로 통제
-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(1923~4년, 이회영·신채호·유자명·이을규·이정규·정화암): 자유의지·자주연합에 의한 무정부주의적 독립운동노선에 합의
- 신채호: 1928년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을 조직(중국 및 대만 무정부주의자들)

이여성(李如星, 1901~)

- 1901년 경북 칠곡 출생
동생 이쾌대는 현대 미술 대표 화가
- 1918년 중앙학교 졸업,
김원봉, 김약수와 의형제(남경 금릉대학)
- 1919년 혜성단 조직 활동으로 투옥
- 일본 릿쿄대학에서 경제학 전공, 사회주의 수용
- 1930년대 언론 활동
- 해방 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등 여운형과 함께 활동
- 1948년 4월 남북연석회의(평양)에 참석, 북한에 남음.

숫자를 통해서 본 식민통치의 실상과 비판

- 조선총독부: 양적 성장만을 지표로 삼아서 조선 경제의 발전상을 부각
- 『숫자조선연구(數字朝鮮研究)』
조선인과 일본인의 민족별 비교 방법을 통해 질적 차이를 규명
→ 과학적 방식으로 일제 통치를 논리적으로 반박